

중학생용

신문기사 밑줄 치며 즐겁게 읽기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CONTENTS
목차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활동
주제

01. 신문으로 만나는 해외 뉴스	08
02. 포켓몬빵과 기사 제목에 담긴 의미	10
03. 읽고 찾는 음식의 맛과 멋	12
04. 비교하며 읽어보는 K-게임의 기적	14
05. 신문 속 어휘와 표현 돋보기	18
06. 신문 기사에도 의견이 담긴다고요?	20
07. 통계 기사로 파악해보는 ‘코로나19 우리들의 삶’	22
08. 기사 읽고,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24
09. 신문으로 중심내용 요약하기	26
10. 신문으로 세상의 변화 읽기	28
11. 나도 신문기자 - 원인과 결과 찾기	30
12. 나도 신문기자 - 윤리 선언문 만들기	32

VISA (확인서)	35
------------	----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는 초·중·고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어휘력 키우기, 신문 기사 이해·분석·비교·요약하며 읽기, 사실과 의견 중심으로 신문 기사 읽기 등의 활동과제를 수행하며 문해력(文解力·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고 읽기·쓰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NIE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신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5쪽 참조)**가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2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장**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적을 경우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한 날짜 등 ‘나의 활동 메모’(6~7쪽)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35쪽)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알림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 | | | | |
|--|--|--|---|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 |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
|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 아주경제
https://www.ajune.com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The JoongAng
중앙일보
http://joongang.co.kr |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 |
| 한겨레
http://www.hani.c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
| news1
KOREA
http://www.news1.kr | 연합뉴스
http://www.yna.co.kr | 대한경제
http://www.dnews.co.kr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
|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
| 대전일보
http://www.daejeonilbo.com | 每日新聞
http://www.imaeil.com |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
|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 全北日報
http://www.jjan.kr |
|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 | 충도일보
http://www.joongdo.co.kr |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 |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문기사 밑줄 치며
즐겁게 읽기



한 문장 소감

확인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지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면의 명칭은 신문사에 따라 다르지만, 독자가 신문을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뉴스를 다루는 국제면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신문으로 만나봅시다.

※ 출처 : 동아일보 2022년 3월 18일 18면 기사 일부 발췌

日 지진에 후쿠시마 원전 냉각 7시간 스톱...오염수 탱크 이탈

日 도호쿠서 규모 7.4 강진 발생
동일본대지진 11년만에 또 공포...
신칸센 탈선-수도권 220만가구 정전
도쿄전력 "원전내 방사능 이상없어"...
전문가 "며칠내 더 큰 지진 올수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오전 후쿠시마현 구니미에서 한 주택의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지붕의 파란색 기와 곳곳이 아가 빠진 것처럼 변했다. 구니미=AP 뉴스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36분 경 후쿠시마현 오시카반도 남동쪽 60km 부근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규모는 9.1이었다.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와 물품이 었어지거나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호쿠 최대 도시 센다이에서는 지진의 전조 현상인 '지진광'까지 나타났다. 센다이성의 성벽 일부도 무너졌다.

도쿄와 도호쿠를 잇는 한 신칸센 열차도 탈선했다. 열차 17량 중 16량이 탈선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81명은 부상 없이 무사했다. 이 여파로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 철도 선로 또한 뒤틀리고 고가교 일부가 무너졌다.

도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발생해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규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늦은 밤의 지진으로 놀라서 깬 시민들은 지진 속보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었다. 일부 시민은 정전으로 손전등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왔다.

도호쿠를 관할하는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측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호쿠에는 약 7800명의 교민이 있다.

시민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여전히 상황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며 힘겨웠던 때피 당시 상황을 전했다. 11년 전 당시 집을 잃었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임대주택에 사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의 63세 여성은 아사히에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겨우 체육관에 피신했다. 11년 전 쓰나미로 아파트가 물에 잠겨 도망쳤던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소마의 74세 남성은 "흔들림에 눈을 떠보니 지진이였다. 옷장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지 않았다면 쓰러진 옷장에 깔렸을 것"이라고 했다. 미야기현 게센누마의 57세 여성은 "흔들림이 매우 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혈압약과 마스크만 챙겨 겨우 도망쳤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서도 일부 이상이 발생했다. 지진 직후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도 17일 오전 1시 30분 해일이 관측됐다.

특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를 보관해 놓은 탱크 중 5기가 지진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났다. 원전 1호기에서 11년 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 파편이 남아 있는 격납 용기의 압력 또한 지진 직후 높아졌다 내려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에서 물이 새지 않았고 부지 내 방사선량 데이터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공포는 여전히다.

지진으로 도호쿠 내 주요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전 세계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르네사스는 이바라키현 나가공장 등 2곳의 가동을 멈췄다. 특히 주력 사업장인 나가공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작업 재개에 3개월이 걸렸다. 도요타, 닛산, 소니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아사히 맥주, 전자부품 업체 무라타제작소 등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며칠 새 더 큰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흔들림, 해일 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또한 "1주일간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도쿄 이상훈 특파원 / 이재완 기자



신문 기사를 읽고, 지진 발생에 관한 개요를 정리해보세요.

	개 요
일시	
위치	
규모	
피해 상황	

지진 피해자 인터뷰를 <활동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세요.

활동순서

- 1)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문 기사에서 찾아 밑줄 긋기
- 2) 인원수에 맞게 공간 나누기
- 3)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 나이, 인터뷰 내용 정리하기

<활동공간>

지진이 원전과 산업 시설에 미친 영향을 신문에서 찾아 정리해보세요.

원전 시설	산업 시설

지진으로 원전과 산업 시설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작성해보세요.

·

·

·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유추해 본 적 있나요? 제목은 기사 내용을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이미지도 달라지는데요. 포켓몬빵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제목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 출처 : 중앙일보 2022년 3월 15일 인터넷뉴스

[맛있는 도전] 인기 높았던 추억의 '포켓몬빵' 새롭게 출시

**(가) 샤넬도 아는데 '오픈런' 뿔다...
"포켓몬빵, 이 시간에 사러 오세요"**

요새 어른이(어른+어린이) 사이에 급부상한 아이템이 있다. 띠었다(떼었다)가 붙었다가 다시 띠었다가 붙일 수 있는 스티커인 '띠부띠부씰'이다. 동심을 간직하고 있지만 구매력은 우수해진 어른이들은 띠부씰을 모으기 위해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한다. 식품업계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매 수요층으로 부상한 이유다.

띠부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업체가 SPC삼립이다. 지난달 24일 SPC삼립이 16년 만에 재출시한 '포켓몬빵'이 인기몰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 점포 앞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켓몬빵이 점포에 입고되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서 구매에 나서는 현상이다. SPC삼립은 지난 3일 포켓몬빵 출시 이주일만에 350만개가 팔렸다고 밝혔다. SPC삼립 관계자는 "SPC삼립 베이커리 신제품 출시 일주일 매출보다 600% 많이 팔리고 있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켓몬빵의 인기 이유는 단연 띠부씰이 꼽힌다. 1998년 포켓몬빵 첫 출시 이후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는 다양해졌지만 SPC삼립은 첫 출시 당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스터 캐릭터 띠부씰을 그대로 살렸다. 이 때문에 당시 초등학교에 다녔던 20~30대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평이다. 포켓몬빵은 '돌아온 고오스 초코케익'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을 포함해 '피카 피카 촉촉치즈케익' '파이리의 화려르 핫소스팡'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빵' '꼬부기의 달콤파삭 꼬부기빵' '푸린의 폭신폭신탈기크림빵'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빵 안에는 159종의 포켓몬스터 캐릭터 띠부씰이 동봉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작 빵 맛은 별반 차별화 요소가 없지만, 1200원짜리 빵을 사서 띠부씰을 모으는 재미에 구매한다"며 "구매 대상이 구매력이 있는 20~30대 성인이라 대량구매가 매출 증대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 밖 외출이 쉽지 않아 지면서 걱정 없이 뛰놀았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당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켓몬빵 띠부씰의 인기는 중고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희귀템'인 띠부띠부씰은 최대 5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기 있는 캐릭터의 경우 포켓몬빵 가격(1200원)보다 비싼 3000~4000원에 거래된다.

편의점 점포당 종류별 1개씩만 공급

공급 부족도 포켓몬빵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편의점 3사에는 점포당 포켓몬빵 종류별 1개씩만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 제한이 걸려있다. 시스템상으로는 포켓몬빵 7종류를 1개씩, 총 7개를

주문할 수 있지만, 실제 배송은 2~3개뿐이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신모(48)씨는 "발주는 종류별로 7개를 하는데 입고는 2개뿐이라 포켓몬빵이 있는지 묻는 고객에게 없다고 답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대개 오후 9~10시에 입고되니 정말 필요하다면 입고 시간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자 띠부씰을 동봉한 다른 제품도 잘 팔린다. 14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PB(자체 브랜드) 베이커리 브랜드인 '브레다움' 매출이 쑥 올랐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남자 주인공이 브레다움 빵의 띠부씰을 모아서 여주인공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해당 장면이 방영된 후 일주일(7~13일) 간 브레다움 매출은 전주 대비 3배 늘었다. 황일주 세븐일레븐 마케팅팀 판촉담당은 "띠부씰을 모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며 "코로나19로 펍펍해진 일상에서 작은 재미를 찾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세요.



<미션>

1. 신문 기사에서 어려운 용어를 골라 0표시
2. 1번 활동에서 고른 개수만큼 표에 줄을 그어 줄 나누기(최대 5개)
3. 중학생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 서술 (단, 임무 수행 중 인터넷 검색이나 사전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용어	의미

(가)는 기자가 붙인 소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제목을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새로운 소제목>

<소제목을 붙인 이유>

신문 기사에서 포켓몬빵의 인기 비결을 <활동 요령>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세요.



활동요령

1. 포켓몬빵의 인기 비결에 관한 내용에 밑줄 긋기
2. 아래 <활동란>에 1번 활동 내용 정리하기 * 신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3. 자신이 생각하는 포켓몬빵의 인기 비결을 <나의 생각>에 쓰기

<활동란>

<나의 생각>

기사의 □는 ‘띠부실’과 간접 광고를 이용한 기업 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판매 전략을 정리해보세요.

경제 주체	판매 전략
판매 회사	
드라마 제작사	
유통회사(편의점)	
소비자	
나	

맛있다고 소문난 '유명 맛집'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하여 줄을 서서 먹는 간접함 음식의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맛집 여행은 어려워졌지만, 최근 맛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밀키트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문이 전하는 음식의 맛과 멋을 느껴 보세요.

※ 출처 : 경향신문 2022년 3월 19일 인터넷뉴스 일부 발췌

'맛집 밀키트' 전성시대 · · · (A)과 (B) 담아내야

봄나들이 겸 주말에 나선 '핫플' 맛집, '웨이팅' 20팀이 내 앞에 있을지언정 기함할 필요가 없다. 맛집 시그니처 메뉴를 그대로 재현한 HMR (Home Meal Replacement) 상품이 뜨고 있다. 3대에 걸친 전통 맛집부터 떠오르는 신흥 맛집의 메뉴가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오는 시대다. 주요 밀키트 제조사 상품기획팀은 전국 방방곡곡 지역 맛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맛집 사장들이 직접 밀키트 제작에 뛰어들기도 했다. 굳이 비행기로, 차로 미식을 탐험할 필요가 없는 맛의 신세계가 열렸다. 간혹 미식을 찾아가는 재미,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다는 이를 제외하면 말이다.

■ 맛집 밀키트 '히스토리' 담겨야 팔린다

백년가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레시지 콘텐츠전략 2팀 이나영 매니저는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다양해지고 브랜드보다는 취향을 살린 스몰 브랜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성공한 밀키트의 예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돼 완판 행렬을 이뤘던 '박막례 비빔국수' 밀키트를 들었다. 수십년 식당 운영 경험을 가진 인기 크리에이터 박막례 할머니가 모든 공정에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할머니 손맛이 담긴 국수'라는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누구나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라는 점이 주효했다. '박막례 비빔국수'는 흥행의 조건인 '맛' '스토리' 그리고 '편의성'까지 갖춘 제품이었다. 백년가게 밀키트도 오래된 맛집이라고 무조건 제품화하지 않는다.

"맛집 밀키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양해지고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별한 맛은 물론이고 포장 디자인이나 문구, 매장 분위기, 식당 히스토리까지 담아낸 제품이어야만 보고 반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다 보면 때로 '내 레시피를 훔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제작 과정에서 이견도 생긴다. 식당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구현하길 원하는 사장과 공장 제작 공정의 간극 때문이다. 이를 조율하는 것도 이 매니저 몫이다.

"어떤 맛집은 마늘을 크게 다져서 들어가는 소스가 특징인데 그걸 공장 소스화하다 보면 마늘 조각에 노즐이 막힌다든가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공정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마늘향이 나는 소스로 합의점을 찾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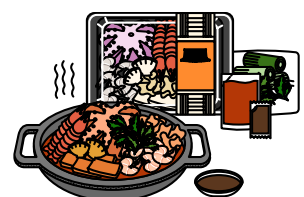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HMR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공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면 다시 '집밥'의 시대가 올까?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밀키트 업체 '블루 에이프런' '헬로프레시'의 매출 하락을 들며 HMR 시장 성장세가 최근 급격히 꺾였다고 보도했다. 이나영 매니저는 밀키트가 준 '간편한 경험'을 소비자들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외식보다 저렴하고 맛도 떨어지지 않는 HMR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밀키트 업체는 맛집 구현을 넘어 '브랜드 컬러버' '콘텐츠 플레이'와 같이 맛과 재미 모두 잡은 다양한 제품을 쏟아낼 겁니다."

이유진 기자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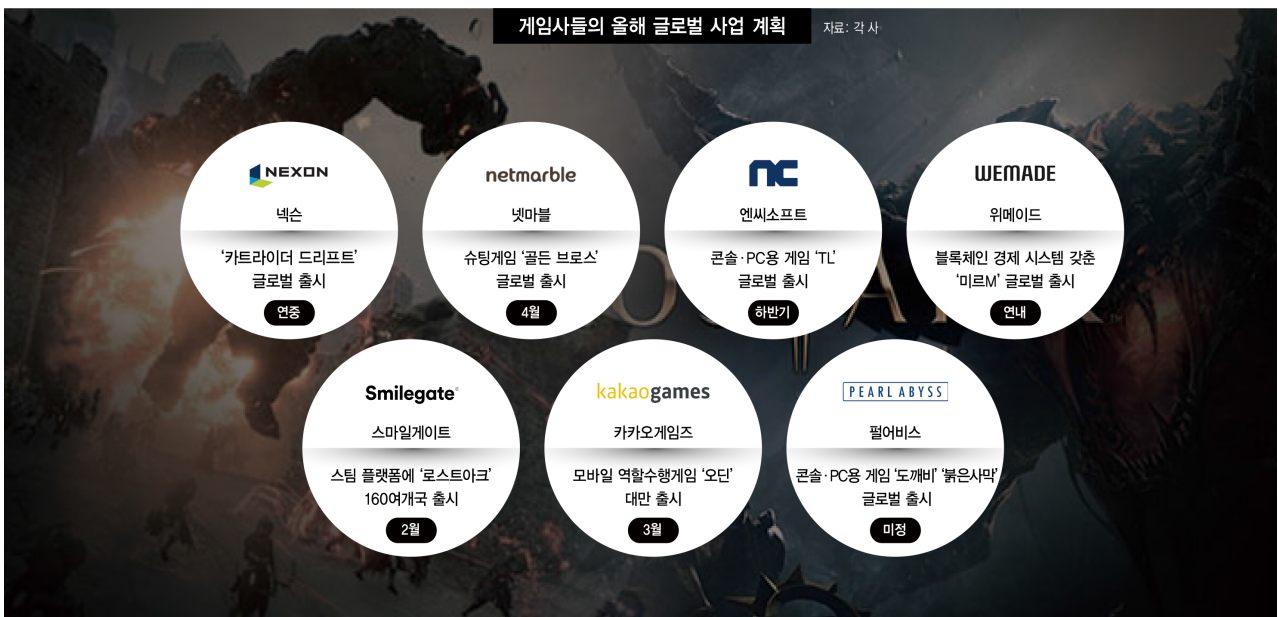
비교하며 읽어보는 K-게임의 기적



우리나라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주목했던 눈을 해외로 돌리면서 해외 시장에 걸맞는 게임 개발이 주효했는데요, 신문에서 전하는 우리나라 게임의 인기 비결을 알아볼까요?

※ 출처 : 한겨레신문 2022년 3월 21일 18면 기사 일부 발췌

글로벌 이용자 톱10에 3개...K-게임의 인기 비결은



■ 스팀 석권한 '로아', 견재한 '배그'

지난 18일 오전 기준 스팀의 실시간 이용자 순위 '톱10'에는 3개의 국산 게임이 이름을 올렸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2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9위), 위메이드의 미르4(10위)였다. 이들 게임은 그랜드 테프트 오토5(GTA5), 피파(FIFA) 2022 등 스팀의 '스테디셀러'들을 10위권 밖으로 밀어냈다.

로스트아크는 지난달 스팀 출시 이후 인기 랭킹 5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발매 초기부터 '빅 마켓'인 북미·유럽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누적 가입자 20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서구권 이용자일 정도로 이 지역 시장을 성공적으로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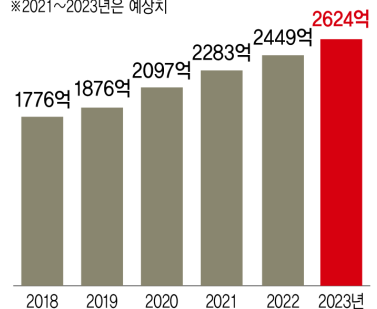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역대 최다 동시접속자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크래프톤 제공

배틀그라운드(배그) 역시 지난 2017년 스팀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이후 5년째 상위권에서 순항 중이다. 1인칭 슈팅(총쏘기) 게임인 배그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7500만장 이상 팔리며 한국 게임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스팀의 역대 최다 동시접속자 기록(325만명)도 이 게임이 갖고 있다. 이 플랫폼 흥행 기록 1·2위를 모두 한국 게임이 차지한 셈이다. 동양을 배경으로 한 역할수행게임인 미르4의 경우 지난해 8월 국외 출시 이후 남미·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게임 방식과 수익모델(BM)을 '글로벌 눈높이'로 설계한 게 이들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국외 게이머들은 국내에 비해 게임 아이템·재화 등에 큰 돈을 들이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2023년은 예상치





이런 게임들은 ‘페이 투 윈’(Pay to win · 돈 써서 이긴다)으로 불리며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동안 과도한 현실(현금 결제) 유도과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논란을 낳은 국산 게임들의 북미 · 유럽 시장 진출이 더뎠던 이유다.

반면 국외에서 성공한 역할수행게임들은 기존 작품들에 비해 유료 아이템 비중을 대폭 떨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 없이도 게임 캐릭터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국외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로스트아크의 경우, 여기에 탄탄한 게임 줄거리 · 화려한 그래픽이 더해지며 각국 팬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스마일게이트 홍보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로스트아크는 개발 기간만 7년에 달했던 ‘대작’이었다”며 “북미 · 유럽 게이머들은 로스트아크의 방대한 배경과 다양한 게임 내 콘텐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미르4는 페이 투 윈을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 게임으로 돈 번다)으로 뒤집는 역발상으로 성공했다. 이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로 게임 내 화폐인 ‘흑철’을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로 환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출시 초기에는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며 물가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 인기를 끌었다.

배그의 경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사례다. 100명의 게이머가 낙하산을 타고 전장에 떨어져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치르는 이 게임은 기존에 흔하던 총싸움 게임에 ‘서바이벌’(생존) 시스템을 결합했다. 출시 당시만 해도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일색이던 국산 게임 사이에서 배그는 장르만으로도 신선했다.

■ “국내 좁다”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로

‘외국에서 먹히는’ 한국 게임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흥행을 노리고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 비교적 쉽게 개발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대신, 국외 수요가 많은 콘솔 대작 등에 도전하는 것이다.

필러비스가 만들고 있는 피시(PC) · 콘솔(가정용 비디오게임기)용 게임 도깨비(DokeV)와 붉은사막이 대표적이다. 이들 신작은 한국에 드물던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개발 중이다. 오픈 월드 장르의 특징은 게임 캐릭터가 특정 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험을 즐긴다는 점이다. 역할수행게임처럼 ‘전투력 높이기’라는 고정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레벨업’ 외에 꾸준히 즐길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 · 개발 난이도 역시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글로벌 진출에는 이 장르가 유리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구매력 높은 북미 · 유럽 등지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깨비는 지난해 8월 유럽 최대규모 게임박람회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4분짜리 맛보기 영상만으로 세계 게이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중견기업 필러비스 주식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 3위로 뛰어올랐을 정도다.

■ 글로벌 진출, 선택 아닌 ‘필수’


회사들의 이런 전략 변화는 한국 게임 업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스마트폰 · 교차양 피시 등의 기기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면서 세계 게임 수요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연말 발표한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전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1776억달러(약 215조원)에서 2020년 2097억달러(약 254조원)로 2년 새 18% 성장했다. 오는 2023년에는 2624억달러(약 318조원)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통계 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세계 게임 인구 역시 2018년 24억9000만명에서 2020년 28억1000만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천호성 기자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게임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세요.(용어의 개수 만큼 표에 줄을 그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용어	의미


 신문기사에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찾아 밑줄을 긋고, 아래에 정리해보세요. 또한 국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요인에 대해 나의 생각도 써보세요.


게임명	성공 요인
로스트 아크	
미르4	
배그(배틀그라운드)	

 국내 게임의 성공 요인에 대한 나의 생각





 기사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활동 요령>을 참고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보세요.


 <활동 요령>

- ◆ 제목(소주제) 정하기
- ◆ 제목(소주제)에 맞는 신문기사 정리
 - * 표, 그래프 등의 자료 형태로 제시해도 좋습니다.
- ◆ 의견 제시
 - * 짧은 문장이나 긴 글로 써도 좋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기사와 칼럼에는 한자어, 사자성어, 시사용어, 신조어, 비유적 표현 등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실리는 글을 꼼꼼히 독해하다 보면 어휘력과 이해력 등이 길러지죠. 기사 및 칼럼의 제목을 읽고 써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교육 활동입니다. 제목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 쓰이고, 의도가 담깁니다. 제한된 글자수 안에서 글의 핵심을 압축해야 하고, 독자의 흥미 유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문 칼럼을 읽어보면서 어휘·이해력을 키워보고, 제목을 붙여보는 활동도 해 봅시다.

 아래 칼럼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경향신문 2022년 4월 5일 26면

‘소리 없는 친구’, 반려식물

무늬둥굴레의 새싹이 다시 솟아났다. 1cm의 검붉은 새순들이 삐죽삐죽 큰 화분을 가득 채웠다. 20여년 동안 한 번 어짐이 없다. 그동안 뿌리를 분양한 게 몇 번이던가. 야생화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봄이 온 것이다. 텃밭에 감자를 심고, 겨울을 이겨낸 쑥을 뜯고 쪽파를 캐 먹을 때다. 냉이는 벌써 앙증맞은 흰 꽃을 피운다. 식물들의 생명력,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새삼 신비롭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려식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집 안팎에서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 식물과 재테크·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식테크’ ‘플랜테리어’ 등 신조어도 낯설지 않다. 반려식물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각종 관련 서비스까지 나왔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반려식물을 관리해주는

호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대표적이다.

부쩍 높아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그 효과 덕분이다.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서적 안정감이 워낙 크다. 언택트 시대에 교감을 나누며 ‘소리 없는 친구’인 반려식물의 위로도 받는다. 인테리어나 공기정화 효과 등도 크다. 실제 반려식물이 우울감,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들도 드물지 않다. 굳이 연구 결과가 아니어도 돌아나는 새싹, 싱싱하게 자라는 잎과 줄기, 터질 듯한 작은 꽃망울, 그리고 각양각색의 열매를 보면 활기를 얻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1인 가구의 증가나 아파트 베란다 공간의 확대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일상이

더 자유롭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 등도 반려식물에 대한 선호를 높인다.

화초가 삶의 동반자가 됐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격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식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급변하는 세상, 파편화된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줄어들면서다. 너나없이 백아와 종자기 같은 ‘지음(知音)’이 없어 외로워서다.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시 ‘수선화’)이라고 한다. 나태주 시인은 “이름을 알고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나면 연인이 된다”(시 ‘풀꽃’)고 한다. 다시 식목일이 왔다. 저마다 마음 나눌 무언가를 찾고 심어 키워볼 때다.

도재기 논설위원





제시된 기사에서 다음 어휘들을 찾아 빨간펜으로 표시하고, 빈칸에 그 뜻을 써보세요.

어휘	뜻
팬데믹(pandemic)	
반려(伴侶)	
인지상정(人之常情)	
격상(格上)	
지음(知音)	

제시된 기사에서 아래 두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뜻을 빈칸에 써보세요.

표현	뜻
소리 없는 아우성	
백아와 종자기 같은	

제시된 칼럼의 핵심어를 찾은 후 이를 바탕으로 칼럼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핵심어는 여러 개를 적어도 됩니다.

핵심어

세 문장으로 요약하기

.....

.....

.....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다듬어 편집하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일을 하는 기자를 ‘편집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편집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시된 칼럼에 적절한 제목을 두 개 붙여보세요. 글자수는 띄어쓰기 포함 15자 내외로 제한합니다. 칼럼의 핵심이 담기되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고민해서 써주세요.

<제목 ①>

.....

<제목 ②>

.....



신문 기사는 사실(Fact)을 기초로 하지만 모든 기사가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사에는 사실과 의견이 함께 들어가기도 해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뜻합니다. ‘의견’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 느낌, 판단 등을 뜻하고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면 기사를 보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봅시다.

아래 문장들을 읽고 괄호 안에 각각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써보세요.

-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시장 약진은 K-게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열린다. ()
- 올해 집값은 다행히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3년 발표한 곡 ‘N.O’ 뮤직비디오가 2022년 3월 13일 오후 12시36분경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돌파했다. ()

제시된 기사를 읽어보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연합뉴스 2022년 3월 22일 인터넷뉴스 일부 발취

이수지 · 백희나...세계 독자들에 성큼 다가선 한국 아동문학

안데르센상 · 린드그렌상 등 세계적 권위 시상식서 잇단 낭보

“이수지 작가의 글이 없는 그림책은 독특 한 문학적, 미학적 혁신이다.”

지난 21일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에 대해 주관사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내린 평가다. 그림만으로 서사를 이끄는 힘이 있으며, 책의 양식을 입체적으로 실험하면서 탁월한 회화로 그림책의 예술적 의미를 구현했다는 뜻이다. 최근작 ‘여름이 온다’를 비롯해 종이책 한가운데 있는 제본선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표현한 ‘경계 3부작’ 등 그간 이 작가가 구현한 작품 세계에 대한 극찬이다.

한국의 아동문학이 최근 세계시장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다.

K팝의 인기가 영화, 드라마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면서 K-컬처, K-콘텐츠라는 표현이 등장한 가운데 그림책을 필두로 한국 아동문학의 인기가 ‘출판한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학 · 출판계에서는 이수지 작가의 안데르센상 수상이 대단한 성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에리히 캐스트너를 비롯해 역대 수상 작가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말괄량이 삐삐’ 작가인 스웨덴 출신 린드그렌의 작품은 안데르센과 그림 형제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 ·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반열에 오른 셈이다. 이 작가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림책 세계로 이끌어준 작가들 이름 옆에 설 수 있다는 게 영광이다. 얼떨떨하다”는 소감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20년에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안데르센상 못지않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았다. 백 작가는 “수공예와 애니메이션 요소를 접목한 예술적 해법 등을 통해 그림책 매체를 새롭게 한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대 초반 데뷔한 이수지, 백희나 등 중견 작가들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주요 국제 그림책상에서 수상하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시상하는 볼로냐 라가치상에는 한국 작가들이 단골 수상자가 됐다.

올해는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최덕규 작가의 그림책 ‘커다란 손’이 각각 픽션 · 논픽션 부문 스페셜 멘션(우수상)에 나란히 선정됐다. (중략)

이은정 기자



 제시된 기사를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을 세 가지만 써보세요

1)


2)

3)

 제시된 기사에서 '의견'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보고, 왜 그 문장에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의견이 포함된 문장

의견이 포함된 이유

 기사 속 '의견'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문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학교가 ‘신문 읽기 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문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은 “올해 이 학교가 ‘신문 읽기 학교’로 선정됐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번에는 제시된 기사에 나온 ‘사실’을 근거로 삼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아동문학’이라는 주제로 ‘사실’과 ‘의견’이 들어간 기사를 써보세요.



신문 기사 중에는 ‘통계’를 기초로 한 기사도 많습니다. 통계는 어떤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통계조사를 거친 자료들은 원, 띠, 막대 등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로 주로 표현되곤 합니다. 신문 통계 기사와 관련한 그래프를 읽어보면서 자료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통계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세요.

※ 출처 : 중앙일보 2022년 3월 15일 인터넷뉴스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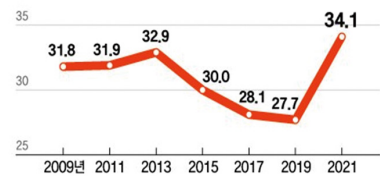
코로나에 추락한 삶의 질... “남 못믿어” 50% “사회적 고립” 34%



사회적 고립도

단위: %, 만 19세 이상 인구대상 조사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통계청

The JoongAng

사회적 고립은 늘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줄고, 대인 관계와 관련한 삶의 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나빠졌다.

15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 악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0년과 지난해 삶의 질이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20개는 이전에 비해 악화했고, 31개는 개선됐다. 여가, 안전, 대인 관계와 관련한 지표가 특히 나빠졌다.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7.7%와 비교해 6.4%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다. 사

회적 고립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라거나 “이야기 상대가 없다”고 답한 사람 비율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36.6%)이 여성(31.6%)보다 고립도가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60대 이상은 41.6%가 사회적 고립 상태였다. (중략)

조현숙 기자




 통계 관련 기사를 읽을 때는 통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및 그래프를 꼼꼼히 읽어보고, 아래 내용을 써보세요.


▶ 조사기관 :

▶ 조사대상 :

▶ 통계단위 :

 위 기사와 그래프를 자세히 읽어보고 아래 내용 중 맞는 것에는 ○을, 틀린 것에는 ×를 표시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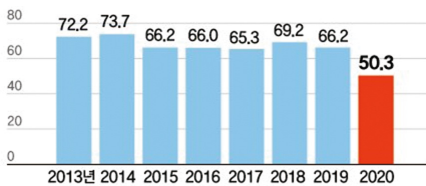
- ▶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
- ▶ 사회적 고립도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
- ▶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것이다. ()
- ▶ 기사 속 그래프로 볼 때 사회적 고립도가 가장 낮았던 해는 2019년이다. ()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는 ‘대인 신뢰도’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 뒷부분에 실린 대인 신뢰도 결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제시된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하는 짧은 기사를 써보세요.

(첫 문장) 코로나19는 사람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대인 신뢰도

단위: %,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The JoongAng

<참고>

- 앞 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고립도’와 관련한 기사를 참고해서 써보세요.
- ‘무엇을’ 조사한 통계 자료인지 잘 살펴보세요.
- 그래프 속 2019년 이후 ‘대인 신뢰도’가 이전과 달리 많이 하락했음에 주목해보세요.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좋은 교재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실린 여러 내용을 정리해 범주화할 수도 있고, 기사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광고·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숙박 노쇼 운동’ 관련 기사를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 한겨레신문 2022년 3월 6일 인터넷뉴스

“당신과 그 멋진 집이 안전하길”... 우크라 숙박 ‘선한 노쇼’ 확산

가정집 등을 숙소로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여행 계획이 없으면서도 숙소를 빌리고 숙박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다.

방송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런 지원 아이디어가 퍼지면서 지난 2, 3일 전세계에서 예약한 우크라이나 에어비앤비 숙박 건수가 6만1천밖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인들이 예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 사는 볼로디미르 본다렌코는 요즘 거의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지내는데, 지난 4일에만 10건이 넘는 숙박 예약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엔엔>에 “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고 큰 도움이 된다”며 “숙박비로 들어온 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지원 운동은 온라인에서 시작됐으며, 이 운동을 이끄는 이들은 숙박 일자리를 가까운 날로 지정할수록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빠르게 돈이 입금된다고 알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보통 손님이 숙소에 들어간 다음날 숙박비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미국 뉴욕에 사는 문학 강사인 앤 마저릿 대니얼은 온라인에서 이 운동을 접하자마자



자 곧바로 행동에 나서, 키이우 옛 도시 구역의 숙소 2박을 예약했다. 대니얼은 예약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당신과 당신의 멋진 집이 안전하고,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안전하기를 소망한다”는 응원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집주인 올가 즈비란스카야는 즉각 “평화로운 키이우 모습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포옹하면 기쁘겠다”고 답했다.


키이우의 은퇴한 선원인 안드레 오시프추크는 3년 전에 자기 집에 숙박했던 발레리 지머가 이 운동에 동참해 최근 다시 숙소를 예약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지머는 오시프추크에게 직접 연락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으며, 주변인들에게 에어비앤비 예약을 권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뉴욕 시민 카레이안 데이요는 “큰 조직에도 기부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훨씬 더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에서 손님과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대변인은 “위기의 시기에 우리 공동체의 고무적인 너그러움에 마음이 겸허해진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제시된 기사를 읽고 아래 어휘의 뜻을 빈 칸에 써보세요.

어휘	뜻
에어비앤비	
노쇼(No-Show)	
고무(鼓舞)	

 우리나라 배우 임시완 씨도 ‘숙박 노쇼 운동’에 동참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본 후 여러분이 직접 임시완 씨 사례가 담긴 기사를 써서 위 기사의 적절한 대목에 추가해보세요. 추가할 부분에 빨간펜으로 ‘추가’ 표시를 하고, 기사 내용은 아래 칸에 써보세요.

예) 한편, 우리나라 배우 임시완 씨도~

 제시된 기사를 잘 읽어보고, ‘우크라이나 숙박 노쇼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써 보세요. ① 에어비앤비는 무엇인지, ② 어떤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③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제시된 기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선한 노쇼’를 주제로 캠페인성 광고를 만들어보세요.

 광고 붙이는 곳

09

신문으로 중심내용 요약하기



신문 기사는 소재, 주제, 주장, 근거 등이 담긴 논리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신문 기사에서 핵심 단어, 중심 주제 등을 찾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기사가 말하는 바를 요약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보고 중심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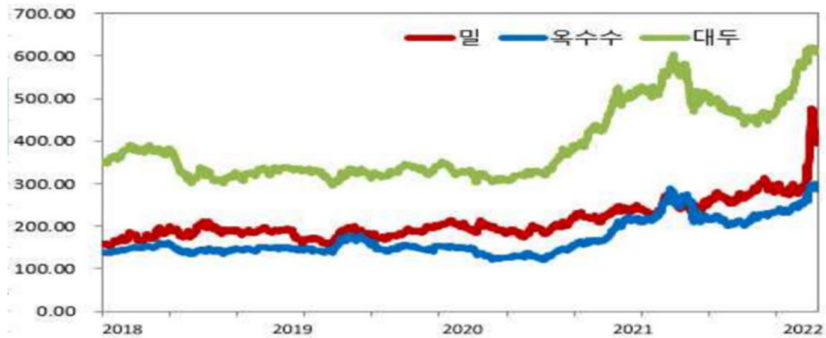
※ 출처 : 전자신문 2022년 3월 21일 9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제목: ① _____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국내 제분 업계와 가공식품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원맥(빵지 않은 밀)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격이 요동치다 올해 완만한 흐름으로 전망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제분사들의 공급가 인상으로 라면, 과자,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이 추가(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공급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제분업계는 최근 원맥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분업계는 국제 원맥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처별 공급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 제분업계 관계자는 “올해 원맥 가격



오름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연초 세운 원가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가격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 라 추가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세는 바잉파워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밀가루 가격이 인상되면 라면, 빵, 과자 등 식품 가격(③)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식품사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매가격을 일제히 올린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외식 물가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박효주기자


위 기사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신문 기사에 나오는 식품을 찾아 써보세요.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신문 기사에서 경제 용어를 찾고, 그 뜻을 써보세요.

경제 용어	뜻

 신문 기사를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중심내용을 요약해보세요

 밀가루 가격과 빵, 과자의 가격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보세요.

(밀가루가격)

(빵, 과자 가격)





신문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세상을 보여주는 창 역할도 합니다. ‘지능형(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관련 기사를 읽고, 이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을 알아봅시다. 또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 출처 : 중앙일보 2022년 3월 21일 인터넷뉴스 일부 발췌

“휠체어 탄 보행자 위해 신호 연장”... 울산에 ‘똑똑한’ 횡단보도 생긴다



휠체어 탄 보행자가 신호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스스로 신호를 연장해주는 ‘똑똑한’ 횡단보도가 등장했다.

울산시는 21일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중구 울산시청 앞 횡단보도에 시범 구축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행자 검지기는 단순히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검지해 통행하는 차량에 보행자의 유무만 알려줬다.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세부 사항까지 인식한다.

이 CCTV는 횡단보도의 ‘눈’ 역할을 하며,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차량 접근정보, 보행자 횡단 등의 정보를 인식하고 전광판·스피커·경광등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만약 휠체어나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보행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주어진 보행 신호 시간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한다.

백경서 기자

신문 기사에 나오는 단어를 초성게임을 통해 맞춰보세요.

ㅈ ㅂ

--	--

ㅅ ㅍ ㅋ

--	--	--

ㄱ ㅌ ㄴ ㅈ

--	--	--	--

ㅎ ㄷ ㅂ ㄷ

--	--	--	--

ㅇ ㄱ ㄹ ㅈ

--	--	--	--



신호등이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편리함을 주는지 써보세요.

신문에 등장하는 용어 중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 뜻을 찾아보세요.

용어	뜻

이 글의 중심내용을 한 줄로 써보세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4컷 만화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은 AI(인공지능)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써보세요.



신문 기사는 특정 사회 현상을 둘러싼 원인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기사 속 현상의 원인을 찾아봅시다. 또한 이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도 고민해봅시다.

※ 출처 : 서울신문 2022년 3월 24일 1면

“확진 의료진, 사흘 만에 진료 투입… 아파도 검사 꺼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인들이 현장의 의료체계가 붕괴됐다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의료 인력 확충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인수위와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과 국·사립대 병원 종사자 등 19명은 방호복과 안면보호구(페이스실드)를 착용한 채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진은 사람도 아납니까’ 등의 문구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대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의 정지환 지부장은 “재택치료 기조로 전환되면서 치매, 욕창, 투석 등 집중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입원 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며 “25명의 위중증 환자를 4명의 야간 간호사가 전담하는 등 인력 공백이 심각해 나타나도 검사를 망설인다”고 말했다.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 연세의료원의 이철종 정책부장은 “매일 20~30명의 의료진이 새롭게 확진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사흘 격리 후 아픈 몸으로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확진자를 이송할 병실도 없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3~5일만 격리한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의 지침을 마련했다.

격리 병동과 음압병실 등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공공병원인 서울서남병원 김정은 지부장은 “재택치료 중 영아가 사망한 이후 정부는 소아응급센터를 늘린다고 했지만 아직도 심야에 12개월 미만 영아가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울부짖으며 전화하는 아이 엄마에게 아무 곳도 안내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심정이었다”고 전했다.

곽소영 기자

신문 기사에 나오는 직업을 써보세요.





낱말 기차 만들기

▶ 신문에 있는 낱말을 오려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신문을 읽은 후 문단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 하세요.

재택 치료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였다. 간호사들이 야간에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늘어서 코로나 증상이 나오면

_____.

- (1) 검사를 망설입니다.()
- (2) 재택 근무를 합니다.()
- (3) 소아 응급센터에 갑니다.()

신문을 읽고 결과에 알맞은 원인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원인	결과
→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아파도 사흘 격리 후 아픈 몸으로 복귀해 환자를 치료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위 내용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문제점	해결방안
→	



신문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다룹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는 원인 및 피해 사례 등을 알아보고, 기자에게 필요한 윤리적 자세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 출처 : 조선일보 2020년 1월 1일 4면 기사 일부 발취

가짜가 진짜보다 6배 빨리 퍼진다... 인류 파괴하는 '거짓 정보'

시안 아탈 미 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를 실증 분석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때 트위터에서 많은 가짜 뉴스가 오가는 데 놀라 시작한 연구였다. 트윗 450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가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약 6배 빨랐다.

아탈 교수는 '참신함의 가설'을 이유로 들었다. "인간의 주의력은 새로운 것에 끌린다. 가짜 뉴스는 상당수 새롭다고 느껴진다. 가짜 뉴스의 새로움은 대부분 놀라움과 분노로 이어진다. 새 정보를 알리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사회적 우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자주 공유한다."

가짜 뉴스의 전파가 빠르다는 것은 놀라움과 분노가 그만큼 확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은 분노의 확산이다. 반면 진실을 접했을 때는 기대감, 기쁨, 신뢰의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가짜 뉴스의 파급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2016년 미 대선이다. 아탈 교수는 "유권자 27%가 러시아발(發) 가짜 뉴스에 노출됐고 페이스북에서만 약 2억2600만이 거짓 게시물에 보았다"며 "이것은 미친 수치"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유포자를 비롯한 당시 가짜 뉴스 조작 세력은 주로 미국의 경합 주(州)를 공략해 미 대선

을 교란했다. '동성애 조직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원했다' '클린턴이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도 전파됐다.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은 한 청년이 피자 가게를 찾아가 총을 쏘아대 처벌받았다. 일명 '피자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아탈 교수는 "가짜 뉴스가 유권자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안 아탈 MIT 교수에 따르면 정보 격차가 심한 개발도상국일수록 가짜 뉴스의 해악은 더욱 크다. 정보 격차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에도 쓰나미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진도 8.1 강진이 뒤이어 온다'같은 가짜 뉴스가 퍼졌다. 많은 이재민이 집에 갈 수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겁에 질려 노숙했다. 인도네시아에선 스마트폰이 보급될수록 거짓으로 인한 2차 재난이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하는 저널리즘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2차 재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저널리즘이 재난의 방파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신영 기자, 뉴욕 오윤희 특파원

 가짜뉴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과 신문을 읽고 가짜뉴스를 알게 된 점을 써보세요.

가짜뉴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신문을 읽고 가짜뉴스에 대해 알게 된 점



▶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기사에서 각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라가 가짜뉴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해보세요.

① 힐러리




② 인도네시아




①

②

 기사의 핵심내용을 유튜브로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보세요.

#1 장면 소주제	#2 장면 소주제	#3 장면 소주제	#4 장면 소주제	#5 장면소주제
내용설명	내용설명	내용 설명	내용설명	내용설명

 내가 신문 기자가 된다면, 어떠한 자세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인지 '기자 윤리선언문'을 만들어보세요.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2 신문으로 문해력 키우기’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_____

강 홍 준

MEMO 

Lined area for writing a memo,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MEMO 

Lined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Lined area for writing a memo,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발행일 | 2022년 6월 16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홍근태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김청연 전 한겨레 매거진 랩팀 기자
김유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구사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강홍준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